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베트남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23년 4월 27일 | 책임조사역(G3) 박선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31천 km ² 	인구 9,940만명 (2022 ^e)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대외정책 미국, 중국과 균형외교 
GDP 4,065억 달러 (2022 ^e) 	1인당GDP 4,087달러 (2022 ^e) 	통화단위 Dong 	환율(U\$기준) 23,271.2 (2022 ^e) 

-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하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화국임. 1986년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도입하며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였음.
- 베트남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상과 무역, 공급망 확대를 위한 경제 협력의 핵심 국가이자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및 정치적 안정성 등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임. 또한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꼽히며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응우옌 푸 쩡(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은 부정부패 척결 및 국유기업 민영화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말 공산당 대회에서 서기장으로 재선출되어 정치적 안정과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 ASEAN, RCEP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중국과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관계 악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2. 22 수교 (북한과는 1950. 1. 30)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93), 무역협정(1993), 투자보장협정(1993), 항공협정(1993),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과학기술협정(1995),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1995), 원자력협정(1997), 사증면제협정(1999), 기술협력협정(2005), 무상원조협정(2009)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48,510,572	56,728,532	60,963,680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부품
수입	20,578,589	23,965,707	26,724,717	무선통신기기 부품, 의류, 신발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8,125건, 33,643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7.5	7.4	2.9	2.6	8.0
소비자물가상승률	3.5	2.8	3.2	1.8	3.2
재정수지/GDP	-1.0	-0.4	-2.9	-3.4	-2.5

자료: IMF

2022년 경제성장률은 8.0%로 추정되며, 코로나19 이전 경기 회복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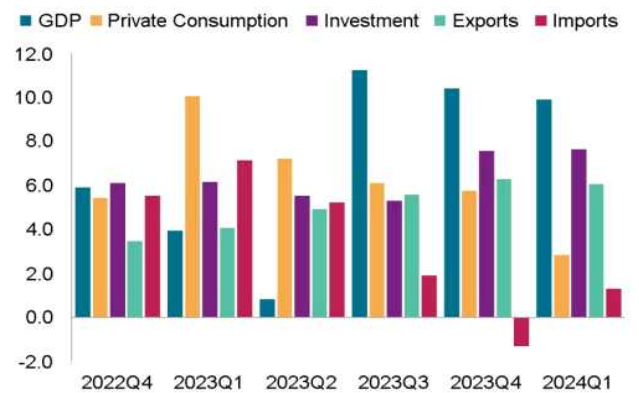
- 베트남 경제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FDI 감소, 관광업 침체, 내수 위축 등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인 2020년 2.9%, 2021년 2.6%의 성장률을 기록함. 그러나 2022년에는 코로나19 방역정책 완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 수출 및 제조업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8.0%의 높은 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1월 여객기 정기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5월에는 베트남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입국 조건 없이 전면 재개방 정책을 시행하였음.
 - 베트남 정부의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6.5%이며, IMF, ADB, World Bank 등도 6%대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음. 다만, 베트남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및 수요 위축 등이 경제성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IMF 6.2%, ADB 6.3%, World Bank 6.7%, IHS Markit 6.5%, EIU 6.8%
- 베트남 정부는 2023년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 지원, 고속도로·항만·디지털 인프라 구축 투자 등 여러 정책을 추진 중임.

[그림 1] 베트남의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EIU

[그림 2] 베트남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IHS Markit

국내경제

식자재, 에너지 등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전망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2%로 베트남 정부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치인 4.0%를 하회한 수치이나, 2022년 4분기와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4%, 4.9%를 기록하여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글로벌 공급 차질, 내수 회복 등 소비자물가 상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심화되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동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23년 1월 부문별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하였음. 부문별로는 주택 및 건축자재(6.9%), 식·음료 서비스(6.1%), 주류 및 담배(4.4%), 의류 및 신발(2.8%)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베트남 정부는 올해 유류 가격 및 전기요금 인상(8~10% 내외), 공무원 기본임금 인상(20.8%)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최혜국(MFN)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할 계획이며, 기업이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투명한 투자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유연한 재정 및 기준금리 조절 등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완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코로나19 대응 지출 감소 및 경제활동에 따른 세입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개선

- 베트남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부여, 도로와 항만 등 각종 대형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 부문 등에 대한 재정지출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겪어왔음. 2022년에는 코로나19 정책 완화로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감소하고 일시적으로 면제 혹은 인하했던 세금 원복, 경제활동에 따른 세입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3.4%) 대비 개선된 -2.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베트남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공무원 기본급 20.8% 인상, 교통·에너지·인프라 등 투자도 계획하고 있어 재정수지 적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정부 부처에 투입되는 예산을 2025년까지 평균 10%, 2030년까지는 평균 15% 삭감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 2022년 11월 베트남 의회는 공무원 기본급을 2023년 7월부터 월 149만 동(63 달러)에서 180만 동(약 76달러)으로 20.8% 인상할 것을 결정했으며, 이는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의 인상임. 한편, 베트남 공무원 월급은 2022년 평균 임금의 38%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왔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e
경 상 수 지	5,899	13,101	15,060	-3,812	-1,642
경상수지/GDP	1.9	4.0	4.4	-1.0	-0.4
상 품 수 지	16,540	21,494	30,708	17,697	23,247
상 품 수 출	243,697	264,189	282,629	336,311	417,387
상 품 수 입	227,157	242,695	251,921	318,614	394,140
외 환 보 유 액	55,074	77,955	94,436	107,437	84,693
총 외 채	109,964	122,635	125,501	133,297	144,982
총외채잔액/GDP	36.1	37.0	36.2	36.1	35.7
D.S.R.	7.1	3.8	4.1	4.5	3.9

자료: IMF, OECD

상품수지 흑자 확대 및 서비스수지 적자 비중 감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폭 감소

- 2022년 베트남은 내수 회복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 및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베트남 내 다국적기업의 본국 해외송금 증가로 인한 본원소득수지 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31.4% 증가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18.5% 감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전년(-1.0%) 대비 개선된 -0.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친화적인 업무 환경 및 다양한 FTA 등을 활용한 시장 확대를 통해 상품수지 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베트남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FDI 기업들이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함에 따라 본원소득수지 적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호치민사무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60%가 향후 2년 내 투자 확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다만,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불투명한 세무절차, 법률제도 미비 등은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됨.

[표 1] 베트남 경상수지 구성 현황(억 달러)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e
상 품 수 지	165	215	307	177	232
서 비 스 수 지	-37	-24	-103	-157	-128
본 원 소 득 수 지	-158	-153	-148	-161	-181
이 전 소 득 수 지	89	92	95	103	61

자료: IMF, EIU

외채상환능력

상품수입 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말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2.3개월분으로 감소 추정

- 2022년 말 베트남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1조 74억 달러, 월평균수입액의 3.6개월분) 대비 18.4% 감소한 847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2.3개월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FDI 기업의 생산 및 투자 증가로 인한 생산 자재·부품의 수입 증대에 따라 수입대금 결제액 대비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임. 식품 및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및 동화 평가절하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은 외환보유액 유지 또는 증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외환보유액 변동(억 달러, IMF) : 551('18) → 780('19) → 944('20) → 1,074('21) → 847('22)

- 2022년 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각각 35.7% 및 3.9%로 추정되어 비교적 양호한 편임. 다만, 총외채잔액은 2017년 말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베트남의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총외채잔액(억 달러, OECD) : 1,100('18) → 1,226('19) → 1,255('20) → 1,333('21) → 1,450('22^o) → 1,560('23^f)

구조적취약성

수출구조는 다변화되어 있으나, 제조업 부문은 저부가가치인 단순 조립 생산 중심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의 총수출액 대비 비중은 휴대전화 단말기 및 그 부분품 17.4%, 컴퓨터·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13.3%, 기계 및 장비류 9.7%, 섬유 및 의류제품 8.9%임. 또한, OECD에서 발표한 베트남의 비제조업 부문 단일산업 수출의존도는 2021년 기준 최대 4.0%(관광업)로, 특정 품목 및 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낮으며 수출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음.
- 다만, 제조업 수출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은 외국계 기업이 자국에서 부품을 수입한 후 베트남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수출하는 저부가가치 중심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해수면 상승 및 폭염 등 자연재난에 취약

- 베트남은 약 3,200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로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태풍이 집중 발생하며, 저지대 삼각주가 넓게 분포한 지리적 특성상 태풍과 그에 따른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함. 농업 부문의 중요도가 높아 이상기후 발생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홍수, 해일, 폭풍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충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연안 지역 해수면 상승 및 폭염 등으로 매년 평균 8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1,20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연안 지역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침.
- 2021년 10월 31일 제26회 유엔기후변화회의(COP26)에서 팜민 친 총리는 기후변화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베트남의 8차 전력개발계획(PDP8)은 석탄발전 에너지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멈추고 천연가스 화력발전으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4년 대비 최소 15% 이상 감축할 예정임을 밝힘.
- 한편, 베트남은 2022년 2월 동남아시아 재해위험보험기구(Southeast Asia Disaster Risk Insurance Facility, SEADRIF)에 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 현재 회원국은 베트남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이며, 동남아 국가의 기후변화·재해 대비 등을 목표로 함.
* SEADRIF는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위험에 따른 동남아시아 역내국가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금융회복력 강화를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간 협의체로 세계은행의 기술 지원과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승인되어 2018년 12월 창설됨.

성장잠재력

다국적 기업들의 FDI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 지속 기대

- 베트남은 저임금, 정치적 안정, 다수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주요 시장 앞 수출 용이성 등에 힘입어 제조업 부문 FDI를 꾸준히 유치해 왔으며, FDI 기업의 수출액이 총수출액의 약 73.7%(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투자와 수출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방형 경제구조임.
- 2022년 12월 20일 기준 FDI 유치액은 27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함. 베트남 기획투자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141개 이상의 국가가 베트남 내 투자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한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홍콩 순으로 투자금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이후 FDI 유입이 부진하였으나,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중국 위주의 생산기지를 재편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되고 2020년 베트남-EU FTA 발효 및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이 이뤄져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바, 베트남 앞 제조업 FDI 유입 확대와 이에 따른 수출 증대가 기대됨. 특히 베트남은 중국과 접경하고 있어 중국 공장을 이전하기에 물리적으로 용이하며, 공장 운영을 위한 인프라도 비교적 우수하여 유력한 대체지로 평가되어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전을 확정함.
- 미국 Qualcomm은 2020년 6월 중국 생산라인 대체를 목표로 6월 베트남 하노이에 테스트 센터를 설립하였고, Hoya Group 등 중국 내 일본 기업 15개사도 베트남으로 이전 및 투자 확대를 결정하였음.
- 샤오미 협력업체인 DBG Technology사도 2022년 5월부터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옌 성에서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Lego 그룹은 남부 빈즈엉 VSIP III 산업단지에 2024년까지 50%의 완공률을 목표로 10억 달러 규모의 생산공장을 건설 중임.
- 베트남 정부는 2023년 1월 31일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행정개혁 목표를 발표함. 이 목표에 따르면 전문검사 목록을 축소하고 기본적인 세관기록을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등 세관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적재산권, 통관대리인, 통관 장소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임.

다양한 경제정책 발표에 따른 경제발전 기대

- 베트남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인플레이션 통제·경제성장 촉진에 관한 총리령', '사회경제적 지원 시행령', '공공투자 분배 촉진을 위한 결정서', '하노이 개발 방향과 실행계획' 등을 통해 고속도로, 항구, 디지털 인프라, 5G, 농촌 개발 등에 집중 투자 등으로 경제 및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수도인 하노이를 선진국 수도와 견줄만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함.
- 베트남 정부는 2045년 목표로 2030년까지 실행할 하노이 개발 방향과 과제를 포함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안은 하노이 시가 선진국의 수도와 견줄만한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추고 1인당 GDP를 2045년까지 36,0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부처, 정부의 산하기관 및 하노이 인민위원회에 할당하여 실행을 본격화함.

성장잠재력

2023년 신흥시장물류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10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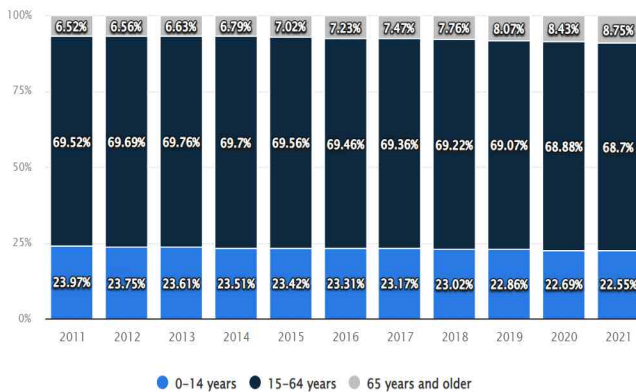
- 2023년 글로벌 물류기업 Agility의 신흥시장물류지수(Emerging Market Logistics Index)¹⁾ 보고서에서 베트남은 평가 대상 50개국 중 10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1년 전 11위보다 1단계 상승한 것이며, ASEAN 지역 내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 이어 4위임.

※ 중국(1위), 말레이시아(4위), 인도네시아(5위), 태국(8위), 필리핀(18위), 캄보디아(38위), 미얀마(49위)

주변국 대비 젊은 인력과 낮은 임금수준으로 제조기지로서의 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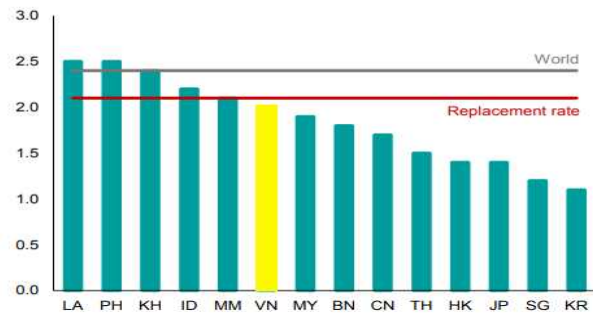
- 베트남의 2022년 인구 추정치는 약 9,946만 명으로 ASEAN 3위, 세계 15위에 해당됨. 생산가능인구인 15~65세가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5~34세까지의 젊은층이 전체 인구의 약 35%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은 사회임.
- 2021년 기준 베트남의 출산율은 2.0명으로 ASEAN 포함 주변 국가들과 비교 시 높은 편임. 또한 베트남의 평균연령은 32세로 중국 38.8세, 태국 40.1세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됨.

[그림 3] 베트남 인구 연령별 비중(%)



자료: 베트남 통계청 / Statista

[그림 4] 2021년 ASEAN+3국가 여성 1인당 출생아 수



Sourc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Note: BN = Brunei; CN = China; HK = Hong Kong; ID = Indonesia; JP = Japan; KH = Cambodia; KR = Korea; LA = Lao PDR; MM = Myanmar; MY = Malaysia; PH = the Philippines; SG = Singapore; TH = Thailand; and VN = Vietnam.

자료: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2022

- 2022년 7월 1일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기존 대비 6% 인상되었으나, 베트남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의 월 최저임금은 197달러로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임.

※ 2022년 월 최저임금: 베트남(197달러), 태국(300달러), 필리핀(305달러), 중국(375달러)

- 주요 제조업 기지였던 중국이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 상승 및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중국에 집중된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 등 주변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됨.

1) 국내 물류사업 기회, 해외 물류사업 기회, 물류 사업기반 등 평가

정책성과

부패와의 전쟁 선언 후 가시적 성과 달성

- 3연임을 수행하고 있는 응우옌 푸 쯩 서기장은 지난 10년 동안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노력해옴. 최근 반부패 중앙운영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부패, 권한 남용 등 경제범죄 관련 1.6만 건을 적발했으며, 3.3만 명을 기소함. 특히 기소된 사람 중 7,390명의 당원을 부패 혐의로 처벌했으며, 이 중 고위 간부 170명 포함 장성급 간부도 50명이 넘었다고 발표함.
-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베트남은 42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77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1년 전 87위보다 10단계 상승한 결과로, 말레이시아보다는 낮고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보다는 높은 순위임.

※ ASEAN 회원국들의 부패인식지수: 말레이시아(47점, 61위), 태국(36점, 101위), 인도네시아(34점, 110위), 필리핀(33점, 116위), 라오스(31점, 126위), 캄보디아(24점, 150위) 등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국영기업 민영화 등 본격 추진

- 베트남 정부는 경영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한 583개 국영기업(2016년 기준) 중 128개사를 2020년까지 완전 또는 부분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지지부진함.
- 과도한 매각가격 책정, 구조개혁에 대한 거부감, 부패 척결 정책에 따른 관료들의 소극적 행정,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3년 간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기한 내 목표 달성에는 실패함.
- 2022년 11월 29일 '2022~25년 국유기업 자본 회수 및 재배치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19개 국유기업을 민영화하고 141개를 매각하겠다는 등 수정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 2025년까지 현행대로 자본 유지 126개, 100% 국가 소유 195개 현행대로 유지, 자본 매각 141개, 민영화 19개, 자본 재배치 26개 등을 진행할 예정임.

정치안정

권력 서열 2위 응우옌 쉰옌 폭 국가주석의 돌연 사임으로 보 반 트엉 신임 국가주석 선출

- 2023년 1월 17일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 쉰옌 폭 국가주석이 돌연 사임함. 폭 주석은 인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총리실 장관, 부총리를 거쳐 지난 2016년 총리직에 오른 뒤 2021년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하였으나, 최근 본인 휘하에 있는 다수 공직자들이 각종 부패 의혹으로 체포되고 수사를 받자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밝힘.
- 2023년 3월 2일 베트남 의회는 임시의회를 통해 보 반 트엉 신임 국가주석을 선출함. 트엉 주석은 베트남 역대 주석 중 최연소(2023년 4월 현재 만 52세)로, 공직사회 부패와의 전쟁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한편, 2021년 1월 말 개최된 제13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응우옌 푸 쯁 서기장이 이례적으로 3회 연속 서기장에 임명됨. 서기장은 공산당 권력 서열 1위로,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인 베트남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임을 감안할 때 당분간 정치적 안정과 정책 연속성이 예상됨.

사회안정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세계언론지수는 180개국 중 175위로 최하위 기록

-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순위에서 베트남은 2022년 조사대상 180개국 중 전년도와 동일한 175위를 기록함. 베트남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지부티, 중국,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북한뿐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은 모든 매체에 대해서 국가의 유일 정당인 노동당의 감독과 지시하에 보도될 내용을 선정함. 정부 타도를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거나, 반(反)정부 선전 내용의 보도는 불법으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취급함. 2016년 응우옌 반 호아 기자는 시위 현장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는 등 언론 탄압 수위가 높은 걸로 보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불안정세 확산

-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16~19년의 4년 동안 개발 열풍 및 투자 급증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유동성 부족 및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다수의 부동산 프로젝트 지연, 투자자들 앞 이자 지급 중단 등의 시장 불안정세가 확산되고 있음.
- 2023년 3월 초 베트남 부동산 개발 업체 4위인 노바랜드(Novaland)가 약정과 달리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원*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다른 매입자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임.

* 노바랜드가 건설하는 부동산 빌라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대출이자율이 9~12%였으나, 회사가 대출이자의 대부분을 부담하기로 약정

사회안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는 ESG 요소가 베트남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명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²⁾ Moody's의 평가대상 개도국 총 106개국 중 4등급에 해당되는 국가는 총 44개국임.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2.9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2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6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4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2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6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0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해안 지역의 홍수 발생 등 기후로 인한 재해 발생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빈도 증가 등의 위험이 있음. 재해 발생 시 재건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요구되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음. 수자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메콩 강 삼각주의 농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의 비중이 높아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2037년부터 노동연령 인구 감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젊은층의 기대감 미충족이 장기적으로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깨끗한 식수의 공급 부족, 영양 결핍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가 미진한 가운데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확대가 위험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정책 효율성이 개선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정책 결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며, 정부 기관의 업무 계획과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베트남의 지배구조(Governance)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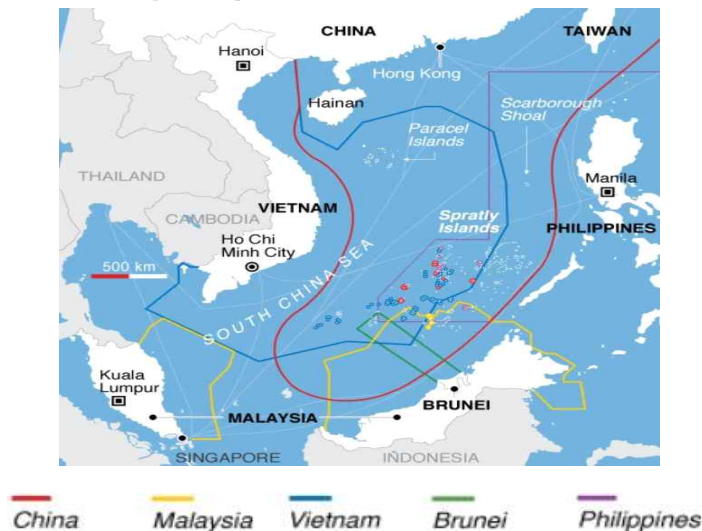
2) Moody's Investors Service, Credit Opinion: Government of Vietnam - Ba2 Stable, December 2022

국제관계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 지속, 미국·일본·인도 등과는 안보동맹 강화 추진

-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오랜 기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등도 중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 남중국해에서의 원유·천연가스 개발, 중국의 인공섬 조성 및 해군 배치, 미국의 적극 개입 선언 등으로 남중국해 문제는 역내 국제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임.
- 2018년 4월 베트남-중국 외교장관 간에 남중국해 공동 개발에 대한 협상이 개시되는 등 양국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중시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7월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중국 지질조사국 소속 선박이 중국 해안 경비정의 호위를 받으며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베트남 해안 경비정이 추격하여 수주일 동안 대치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이 자국 어선을 수시로 분쟁지역에 보내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스프래틀리, 파라셀 군도 내 11개의 암초와 인공섬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전투기 활주로 공사까지 완료하는 등 양국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 남중국해 영유권은 국제적 이슈가 되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베트남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 양국 정치 이념과 체제의 유사성, 외교관계 등을 감안 시 양국 간 군사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그림 5]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현황



- 한편,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는 상황에서 해양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접국 외에도 일본·인도 등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강국들과의 유대를 통해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세력 견제에 베트남이 지닌 중요성을 인지하고 베트남을 동 지역의 주요한 정치·경제적 파트너로 대하고 있음.

국제관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의 관계 강화 추진

-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평화,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ASEAN 회원국들 및 인접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적극 도모함.
- 베트남의 팜민 쯌 총리는 2023년 2월 8일부터 동남아 인접국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순방외교에 나섰다. 싱가포르 방문은 5년 만이며 브루나이는 16년 만의 방문으로, 베트남은 경제, 무역, 투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FDI 유치 및 수출 확대를 위한 FTA 등 체결 노력

- 베트남은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베트남-칠레 FTA, 유럽연합-베트남 FTA, 베트남-유라이사경제연합 FTA(Vietnam-EAEU), 영국-베트남 FTA 등을 체결하는 등 FDI 유치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함.
- 2023년 4월 2일에는 7년의 교섭 끝에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연내 서명할 예정이다. 한국과는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구축으로 2024년 상반기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실시간 교환하게 되어 통관 시간 단축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부담이 크지 않으며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2022년 말 기준 총외채의 66%가 중장기 차관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외채구조가 양호하며, D.S.R도 3.9%의 양호한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임.
- 한편, 202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베트남의 채무잔액은 단기 21억 달러, 중장기 75억 달러 등 총 96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은 중장기 210만 달러(0.0002%)로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함.

단기대외지급능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

- 2022년 말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1,074억 달러) 대비 22.6% 감소한 847억 달러로 추정되나, 이는 단기외채잔액의 171.6% 수준으로 당분간 단기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 (2022.06)	4등급 (2021.06)
Moody's	Ba2 (2022.12)	Ba2 (2022.09)
Fitch	BB (2022.10)	BB (2022.05)

경제 회복력과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에 힘입어 베트남 신용등급 상승

- 2022년 9월 Moody's도 경제회복 속도와 정부의 유동성 개선 노력 등을 감안하여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Ba3 → Ba2), 등급 전망은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조정함.

- 지난 수년 간 7% 내외의 성장을 지속해온 베트남 경제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FDI 유입 감소, 관광업 침체, 내수 위축 등을 겪어 2020~21년 연속으로 예년 대비 저조한 2%대 성장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코로나19 방역정책 완화, 대외수요 및 내수 회복 가속화, 수출 및 제조업 경기 확장 등에 힘입어 8.0%의 높은 성장을 시현함.
-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 쉰퐁 국가주석이 지난 1월 돌연 사임하여 보 반 트영 신임 국가주석을 선출함. 갑작스런 국가주석 교체에도 베트남은 공산당 1당 체제로 사회·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쩡 공산당 서기장이 2021년 1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이례적으로 세 번 연속으로 서기장에 임명되면서 정치적 안전성이 더욱 견고해져 정치적 혼란은 없었음.
-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인도 등과 동맹 강화를 통해 해상 방위능력 강화 및 외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19 이후 공급망 교란 영향에 따른 중국 생산기지 이전 수요에 대응하는 유력한 대체지로 평가됨에 따라 국가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짐.
- 아울러 지속적인 FDI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 시현 등으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여 현재까지는 외채상환능력 및 상환태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함.